

# 理學的 刺戟因子와 五行과의 比較研究

宋泰元 · 李哲浚\*

## I. 緒 論

東西醫學을 莫論하고 物理療法이란 人體의 理學的인 刺戟 또는 機械的인 機轉을 應用하여 疾病의 治療 및 健康增進에 效果를 미치는 治療를 말한다.<sup>1)</sup>

그러나 治療目的, 刺戟의 對象, 理學的인 刺戟因子 등 여러가지면에 있어서는 東西醫學이 달리하고 있다. 그 중 理學的인 刺戟因子에 있어서 現代 西洋醫學은 溫熱, 電氣, 光線 그리고 放射線과 原子力에 이르기 까지 科學的인 利器를 開發하여 利用하고 있는데 비해 東洋醫學에서는 주로 自然的인 因子를 利用하고 自然 發生的인 힘을 應用하고 있다.<sup>2)</sup>

現代科學에서 最近 醫學에 導入되고 있는 尖端 診斷 및 治療裝備의 原理는 과연 무엇인가?

그 本體는 바로 物理, 化學, 數學 등과 같은 物質의 性質과 構成成分을 研究하여 그 性質을 極大化 하려는 學問인 理學이라고 端整지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物理學은 物質의 原理와 自然現象에서의 域活에 中點을 두어 研究하는 學問으로 生覺할 수 있고 化學은 分析과 再合成 등과 같은 變化를 追求하는 學問이라고 할 수 있다.

古來로 東洋에서는 理學을 研究하는데 바탕이 되는 思想이 形成되었는데 바로 陰陽五行說이며 그 基本原理는 變化의 核인 陰陽學說과 變化의 主體인 五行學說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3)</sup> 특히 五行學說은 自然界 事物에 대하여 形而上學的인 側面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物質 그 自體 뿐만 아니라 그 物質이 內包하고 있는 屬性, 性質 등에 依據하여 森羅萬象의 모든 것들을 그 特徵에 따라 各各 五行의 어느 하나로 分類할 수 있다.<sup>4)</sup>

그러므로 以上을 綜合할때 理學的 現象이 바로 自然現象의 一部分이며 그 原動力은 陰陽五行과 一致 한다고 類推할 수 있다.

이에 著者는 理學的 刺戟因子와 宇宙變化의 主體인 五行과의 關係를 文獻을 통하여 比較研究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 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第 1 節 陰陽과 五行

陰陽五行說은 宇宙나 人間社會의 모든 現象을 陰, 陽 두 原理의 消長으로 부터 說明하는 陰陽說과 이 影響을 받아 萬物의 生成消滅을 木火土金水의 變轉으로 부터 說明하는 五行說로 構成된 것이다.<sup>4)</sup>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物理療法科學教室

특히 東洋醫學의 最古原典인 <黃帝內經>에서는 全篇에 걸쳐 東洋醫學의 自然觀과 人體의 生理, 病理에 대한 原理 및 診斷, 治療, 藥物 등에 대한 理論을 모두 陰陽五行으로 說明하였다.<sup>5)</sup> 즉 <陰陽應象大論>에서는 人體와 自然環境과의 關係에서 陰陽五行學說을 定立시켰고, <生氣通天論>에서는 사람과 自然의 關係에서 陰陽의 理致를 說하였으며, <金匱眞言論>에서는 陰陽五行의 理致를 說하였고, <陰陽離合論>에서는 人體의 三陰三陽의 相互關係를 論述하는 등 여러 篇에 걸쳐서 陰陽五行學說을 整備完成하였을 만큼 東洋醫學의 중요한 基礎理論이다.<sup>4)</sup>

### 1. 陰陽의 基本概念

陰陽은 事物의 兩種屬性으로 各種 具體事物中으로 부터 現出되는 것으로 이것은 東洋의 自然哲學의 思想의 陰陽原理를 根據로 한 것이며 自然界 事物의 變化를 陰陽으로 認識하게 하고 모두 陰陽對立 統一의 兩個方面을 생각하는 것이다.<sup>6)</sup>

<陰陽應象大論><sup>7)</sup>에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이라 하여 이는 宇宙의 一切 萬物의 生長發展과 消滅은 모두 陰陽變化의 法則에 따라 끊임없이 運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陰陽繫日月篇><sup>8)</sup>에서는 “夫陰陽者 有名而無形 故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此之爲也”라 하여 陰陽 그 自體는 하나의 抽象的 概念이지만 거기에는 物質的 基礎가 있고 그것은 一切를 包括하며 一切 事物의 對立과 統一을 概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陰陽은 絕對的인 것이 아니고 相對的인 것이며 어느 하나의 事物을 固定的으로 代表하는 것이 아니고 事物의 對立面의 傳變에 따라 改變되는 것이다. 이는 相互 관련된 두가지 對立되는 事物을 代表함과 아울러 同一 事物에 內在하는 相互 對立의 두가지 면도 代表하고 있다. 또한 <脈要精微論><sup>7)</sup>에 “冬至四十五日 陽氣微上 陰氣微下 夏至四十五日 陰氣微上 陽氣微下”라 하여 四季 氣候 變動에 있어서의 陰陽消長을 論한 것으로 이러한 消長變化는 人體의 不斷한 發展 生長을 推進하는 必要要件이며 同時에 人體의 生理의 平衡을 維持하는 必需的 過程이다. <陰陽應象大論><sup>8)</sup>에서 “陰勝即陽病 陽勝即陰病 陽勝即熱 陰勝即寒 重寒即熱 重熱即寒” 이라 하였고 <生氣通天論><sup>7)</sup>에서는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離決 精氣乃絕”이라 하여 陰陽의 平衡은 健康을 維持하는 必須條件이며 陰陽의 失調는 疾病을 誘發하는 根本原因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을 綜合할 때 東洋醫學은 이러한 陰陽의 對立과 相互同根 및 그 消長과 平衡의 道理를 結付시켜 人體의 生理와 病理를 解釋하고 同時에 診斷, 治療를 指導함으로써 東洋醫學 特有的 理論體系를 樹立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五行의 基本概念

太極이라는 統一體가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四段階로 거쳐서 太極으로 發展되고 그러므로써 陰과 陽이라는 두가지 氣運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陰陽은 또다시 各各 分合作用을 일으킴으로써 다섯개의 새로운 性質(木火土金水)이 發生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五行이라고 한다.<sup>3)</sup> 다시 말하면 地球 위에 있는 森羅萬象이 비록 數億을 算한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이것들의 性과 質을 일일이 따진다고 하면 어느 하나 할것 없이 五行의 性質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五行이라는 自然法則을 設定했던 것이다.

五行에 있어서 行이란 뜻은 다섯개의 物質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象만을 代表하는 것도 아니고 形而下와 形而上을 한 形과 象으로 모두 代表하며 또는 象徵하는 符號인 것이다.<sup>9)</sup> 五行이란 이와 같이 形質을 모두 代表하는 것이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無極이 運動狀態로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陰과 陽이라는 서로 相反되는

氣運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이것은 그의 性과 質에서 象을 取하여 가지고 陰陽이란 概念을 붙인 것이다. 그런즉 五行이란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陰陽이 다시 發展成熟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宇宙의 變化하는 相應은 事實上 陰陽運動인 바 이것을 좀더 具體的으로 보면 五行運動이고 抽象的(要約하여서)으로 보면 陰陽運動인 것이다.<sup>37)</sup>

### 3. 五行의 相互關係

五行에는 각기 特性이 있고 이들 사이에는 不可分離의 相互依存 關係가 있는데 그중 五行의 相互關係는 相生. 相剋이라는 두가지면으로 나타난다.<sup>6)</sup> 어느 一行을 取하더라도 다른 四行과의 사이에 我를 生하느냐 我가 生하느냐, 我를 剋하느냐 我가 剋하느냐 하는 相生. 相剋關係를 同時에 가진다. 그러나 이 相生. 相剋關係는 결코 絕對不變한 것이 아니고, 不斷히 運動하고 變化하고 있다. <五常政大論>에 “太虛寥廓 五運回薄 盛衰不同 損益相從”이라 하였으며, <六微旨大論>에서는 “盛敗倚伏 生乎動”이라 하였고, <天元紀大論>에서는 “陰陽之氣 各有多少 …… 形有盛衰 謂五行之治”라 하였는데<sup>10)</sup> 이들은 모두 五行에는 盈虛盛衰가 있어서 끊임없는 運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內經 가운데 五行相互의 ‘太過’ ‘不及’ ‘勝復’ ‘乘侮’ 등에 대하여 述한 篇이 많은데 基本的으로는 모두 五行의 運動이라는 見解로 論述되었다. ‘太過’와 ‘不及’은 五行중의 어느 一行이 盛 또는 衰가 되는 것이다. ‘乘侮’는 相乘. 相侮의 關係를 말하며, 乘은 相對의 虛를 틈타 들어가는 것, 侮는 相對를 반대로 剋하는 것이다.<sup>9)</sup> ‘勝復’은 勝은 相乘이란 뜻이고 復은 報復을 말한다. 五行이 制를 잃고 一方을 損害케 한 경우 그것이 一定한 정도에 달하면 損害를 받은 쪽에 相應한 反應이 나타나서 새로운 均衡關係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五行의 相生. 相剋關係에서 주요한 側面은 相剋에 있다. 事物의 正常的인 生長. 發展. 變化는 주로 이 相剋關係에 의해 진행된다. <六微旨大論><sup>10)</sup>에서 “亢即害 承乃制 制即生化”라 하였는데 承하여 곧 制함이란 五行사이에 相互制約이 作用함을 뜻하며, 制하면 곧 生火함이란 五行이 相互 制約하는 狀況에서 비로소 正常的인 生長. 變化가 이루어짐을 말한다. 그런데 이 亢害承制, 制即生火하는 關係는 實際로는 五行間의 盈虛盛衰가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다는 뜻이다. 五行에 相互制約이 作用함은 五行이 不斷히 運動하고 있기 때문이다.

## 第 2 節 陰陽五行에 대한 現代的 思考

精神現象, 靈的追求에 대한 關心도가 全 世界的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西歐에서도 東洋思想과 現代 物理學의 만남을 說明 하는 書籍들이 계속해서 出版되고 있는 實情이다. 흔히 陰陽의 合一로 表現되는 東. 西洋의 만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東方遠征에서 이미 東西洋의 만남의 衝擊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戰爭에서는 西洋이 勝利했지만 精神의 깊이에서는 언제나 慘敗한다는 것은 東洋系 인디언과 美國人의 對決에서도 나타났고, 西洋은 自然을 征服 하지만 東洋은 自然에게서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世界가 만날때 結果는 두가지 方向으로 나타난다. 한쪽의 一方的인 要求와 破壞가 아니면 完成과 綜合이다. 問題는 우리가 자신의 것을 깊이 理解하고 그 價値를 깨달을때 될 수 있으면 저쪽의 望遠鏡이나 顯微鏡을 動員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것을 說明할 수 있을 때 完成과 綜合이 찾아 온다는 점이다. 이런 脈絡에서 陰陽과 五行에 대하여 現代 科學的으로 考察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陰陽에 대한 現代的 思考

陰陽에 대한 內容이 凝集되었다고 볼 수 있는<內經><sup>11)</sup>을 中心으로 하였다.

\* 陽道實 陰道虛 陽預之正 陰爲之主 (陰陽離合論 太陰陽明篇)

이것은 電子理論과 類似하다. 電氣的으로 陽은 (+)이고 陰은 (-)로서, (+)은 줄 곳

을 찾고 (-)는 받을 곳을 찾는다는 酸化 還元의 理論과 類似하다.

\* 從陰引陽 從陽引陰 (陰陽應象大論)

이 現象은 磁氣 現象과 類似하다. 人體에 있어서 外部刺戟이 內部에 反應되고 內部の 異變이 外部에 發顯하며 左에 刺戟을 주면 右에 反應이 나타나고 右에 刺戟을 주면 左에 反應이 나타나고 上에 刺戟을 주면 下에 反應이 나타나고 下에 刺戟을 주면 上에 反應이 나타난다.

\* 陰之所生 和本曰味(和) (陰陽別論)

味는 物質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物質은 陰陽의 中和體라는 말이다. 物質과 에너지를 比較하면 氣는 陽이고 物質은 陰이지만 純陰과 純陽은 없으므로 氣는 氣대로 物質은 物質대로 陰陽의 中和體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陰陽의 差를 들어보면 物理學的으로 物質은 電氣的 中和體이나 化學的으로 보면 酸과 鹽基가 있다. 酸은 陽이고 鹽基는 陰이고, 또 에너지에 있어서도 中性粒子도 있고 (+)荷電粒子도 있으며 (-)荷電粒子도 있다.

\* 陰陽之要 陽密乃固 (生氣通天論)

이는 陰陽의 均衡을 말한 것으로 物質構造에서 보면 原子核과 外廓電子의 밸런스가 맞으면 安靜되어 化學 變化가 잘 안 일어난다.

\* 陽強不能密 陰氣內絕 (生氣通天論)

陰陽關係에 있어서는 平衡을 이루어야 하며 不及하든지 太過하면 안된다. 陽이 太過하면 陽強으로 陰氣가 消滅한다. 이는 酸과 鹽基의 平衡에 있어서도 酸이 太過하면 acidosis가 되고 酸이 不足하면 alkalosis가 된다.

\* 陰爭於內 陽擾於外 (陰陽別論)

原子에서 보면 內部の 原子核이 安靜을 잃으면 外殼電子의 離脫을 일으킨다. 人身에 있어서도 內臟機能이 不安定하면 外表의 陽氣도 動擾한다.

\* 陽化氣 陰成形 (陰陽應象大論)

氣化하는 것은 陽氣요, 形化하는 것은 陰氣이니, 에너지화하는 것은 陽이요, 物質化하는 것은 陰이다. 人體에 있어서도 異化作用은 陽化氣요, 固化作用은 陰成形이다. 그러므로 陽化氣 陰成形은 代謝過程을 말하는 것이요 形氣 動靜 寒熱의 變化는 代謝過程에서 化生한 것으로 陽化氣에서는 氣 動 熱이 發顯하고 陰成形에서는 形 靜 寒이 發顯한다.

\* 剛與剛 陽氣破散 陰氣乃消亡 淖即剛柔不和 經氣乃絕 (陰陽別論)

剛은 陽을, 淖는 陰與陰을 말하는 것이다. 이 現象은 電氣理論이나 磁氣現象에서도 볼 수 있다.

\* 陰靜 陽躁 (陰陽應象大論)

에너지에서 氣體 液體 固體가 될수록 安定狀態가 되어 形體가 分明해지는 것이니 陰으로 移行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固體에서 液體 氣體 에너지가 될수록 運動狀態가 擴大되어 形體가 漸次로 消失되는 것이니 陽으로 移行하는 것이다. 또 人體에 있어서 發生機能 推進機能은 陽이고, 抑制機能 沈靜機能은 陰이며, 統合機能은 至陰이다.

\* 陰者藏精起氣 陽者衛外爲固 (生氣通天論)

人體에 있어서 陰은 體成分과 臟器요, 陽은 氣다. 그러므로 臟器나 體成分은 化學的 에너지를 收藏하였다가 時時로 내보내어 에너지화함으로써 生理活動과 外部活動을 營爲하게 하고 表外의 氣는 內部臟器를 護衛하여 堅固케 한다.

\* 陽勝即熱 陰勝即寒 (陰陽應象大論)

이는 代謝以上을 말한 것으로 自律神經 異狀現象으로 볼 수 있다.

## 2. 五行에 대한 現代的 思考

東洋에서는 陰陽과 五行을 宇宙的 生命의 原質로 생각했다. 즉 陰陽의 氣(에너지)를 分析하면 五行이라는 元素로 된다. 五行이 元素라고는 해도 오늘날의 元素와는 다르다. 오늘날의 元素는 化學的 反應에 의해서 그 以上 分解 될 수 없는 物質을 말하고 있으나 陰陽과 五行은 物質을 超越한 것으로 成分과 性格을 가지며 政治나 革命의 理念으로 되며 또는 身體構成의 醫學的 理論으로도 된다.

東洋의 五行說에 비해 그리스에서는 地, 水, 火, 風의 四元素說이 있었고 印度에서도 地, 水, 火, 風을 四大라 하였다. 여기서의 대(大:maha-bhuta)는 산스크리트語로 元素를 말하며 四大를 能造의 色이라 하였다.<sup>12)</sup>

그리스에서는 物質의 極限에 대해 Democritis의 原子論이 있고, 分割할 수 없는 窮極의 atom은 끊임없이 運動하며 같은 種類의 atom은 같은 形態 같은 重量이라고 하는 現在의 原子說과 近似한 생각이 提起되었다. 이 atom은 東洋에서는 없었으나 五行의 元素가 變轉해 가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元素轉換說과 닮았다. 이와같은 物質과 事物에 대한 東, 西洋의 思考는 鍊金術 및 丹學에 중요한 基礎가되는 理論으로 發展하였다.

### 第 3 節 五行의 性質

五行學說은 自然界 事物에 대해 形而上學的인 側面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具體的 物質 그 自體 뿐만 아니라 그 物質이 內包하고 있는 屬性, 性質, 作用, 機能 등과 같은 要素들을 觀察, 分析이 要求된다.

#### . 素問 五常政大論<sup>8)</sup>

“木曰 敷和 火曰 升明 土曰 備和 金曰 審平 水曰 靜順……”

“木曰 委和 火曰 伏明 土曰 卑監 金曰 從革 水曰 潤流……”

“木曰 發生 火曰 赫曦 土曰 敦阜 金曰 堅成 水曰 流行……”

이는 五行을 三五分紀에 의해 論하였다.

#### . 素問 陰陽應象大論<sup>8)</sup>

“東方生風 風生木……, 南方生熱 熱生火……, 中央生濕 濕生土……, 西方生燥 燥生金……, 北方生寒 寒生水……” 이는 五行의 概念에 대해 歸類 列舉하였다.

#### . 素問 寶命全形論<sup>10)</sup>

“木得金而伐 火得水而滅 土得木而達 金得火而缺 水得土而絕 萬物盡然 不可勝竭” 이는 五行의 生剋關係를 說明한 것이다.

#### . 宇宙變化의 原理<sup>3)</sup>

五行의 一般의 概念과 三五分紀에 의한 分類를 하였다.

\* 一般의 概念으로 본 五行

木: 湧出, 生, 湧力

火: 分散, 分裂

土: 中和, 統一

金: 堅斂

水: 收藏 凝固

\* 三五分紀에 의한 分類

五常政大論 참조

宇宙의 變化는 一(水)이 三(木)으로 分裂해 나가는 것으로 부터 始作하므로

모든 現象은 하나가 셋으로 구분하는 本, 中, 末의 運動을 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수한 變化도 要約해서 觀察하면 五行이 本, 中, 末(平, 太過, 不及)의 三變運動을 하는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 尙書<sup>13)</sup>

“初一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이는 本草學의 核心이 되는 理論으로 五味를 五行에 演繹한 것이다.

· 方約中<sup>14)</sup>

水: 寒冷, 取下, 滋潤, 閉藏

火: 炎上, 溫熱, 赤明, 化物

木: 曲直, 易動, 伸長

金: 音聲을 發함, 肅殺

土: 戴物, 生化

· 象理哲學<sup>15)</sup>

木: 一水가 二火로 分裂할때 同時에 일어나는 原理로 伸長, 膨脹의 氣運이 있다.

火: 一水가 分裂을 하며 二火를 이룬 것이 곧 太陽의 熱과 光線이며 萬物에 光明을 주고 熱을 주어 生長케 하는 絶對 主體이다.

土: 河圖 中央의 五와 十의 眞理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形象은 四金 一水가 합하여 五土, 三木 二火가 합하여 五土, 그리고 一水 二火 三木 四金이 합하여 十土로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보아 土는 中間에서 조정할 수 있는 原理를 가졌으며 하나의 作用이 끝나면 그 다음 作用으로 連結과 紐帶, 調和와 調節으로써 恒久性을 保障토록 한다. 求心點을 中心으로 上昇과 下降인 縱的 統制와 分裂과 統一인 橫的 調和와 調節등 土의 兩面作用이 있다.

金: 河圖 西方에 위치한 四九 數理의 原理로 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本性은 萬物의 成長을 抑制하고 固體化하므로 모든 結實의 皮質이 堅固한 것이다. 또한 精氣를 收斂하는데서 固體로 化하여 凝集되어 單元의 具體를 이루는 것이 모든 結實의 形態이다.

水: 一六水의 數理의 原理로 부터 이루어졌다. 물은 宇宙를 創造한 本體로써 宇宙運動은 곧 물의 運動이다. 또한 물의 狀態가 變化하는 原理나 作用은 모두 相對的인데 있고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原理이다. 즉 熱을 만나면 氣體로 變하여 蒸發 上昇하고 冷함을 만나면 凝固되어 液體로 變하여 下降하며 이것이 더욱 寒함을 만나면 얼게 되어 固體로 變한다. 이처럼 물의 세가지 變化는 모두 相對的 變化作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安藤昌和<sup>12)</sup>

“五行이라함은 시작도 끝도 없는 자기운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自然의 한 神氣이다. 運動에 의해서 조금 나아가 木, 크게 나아가 火, 조금 물러나서 金, 크게 물러나서 水, 中央에 있어 이들을 分合 統合하고 있는 것이 土이다.”

이는 五行이란 概念을 各各 事物의 屬性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氣가 움직임으로 보았다.

#### 第 4 節 五行과 事物

〈寶命全形論〉<sup>11)</sup>에서는 “木得金而伐 火得水而滅 土得木而達 金得火而缺 水得土而絕 萬物盡然 不可勝竭”이라 하였다. 이러한 記述은 一面으로는 五行의 抽象의 概念에 依據하여 모든 것을 類似한 事物마다 分類 配當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갖 事物과 現象은 모두 그 特徵에 따라 各各 五行의 어느 하나로 分別 된다(도표 1).

도표 1. 事物에 대한 五行의 配屬

事物	五行	木	火	土	金	水
天	方位 季節 氣候 星宿 生成數	東 春 風 歲星 3+5=8	南 夏 熱 熒惑星 2+5=7	中央 長夏 濕 鎮星 5	西 秋 燥 太白星 4+5=9	北 冬 寒 辰星 1+5=6
地	品類 五蕃 五谷 五音 五色 五味 五臭	草木 草 雞 麥 角 青 酸 臊	火 羊 黍 微 赤 苦 焦	土 牛 稷 宮 黃 甘 香	金 馬 谷 商 白 辛 腥	水 猪 豆 羽 黑 鹹 腐

#### 第 5 節 理學的 刺戟因자의 概念

보통 理學的 刺戟因子라 하면 機械를 통한 刺戟因子로만 認識한다. 그러나 機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自然界的 모든 事物들이 發顯하는 現象을 精製하여 刺戟因子로 利用함을 包含한다. 즉 自然的인 物質이나 自然環境등 自然的인 影響을 利用한 刺戟因子와 機器를 利用한 人爲的인 刺戟因子로 分類할 수 있다.<sup>2)</sup>

##### 1. 自然을 利用한 刺戟因子

人體疾病이나 心身を 回復시키는 方法에 自然的인 影響을 利用할 수 있는데 自然的인 影響의 要素로는 自然的인 物質과 自然環境을 들 수 있으며 例로 日光, 空氣, 溫泉(泉水), 泥土, 熱沙, 高山, 巖洞, 山林 등을 들 수 있다.<sup>16)</sup>

人間과 自然은 一體인 理由로 因하여 自然的인 要素가 人體에게 影響을 준다.

##### 1) 泉水

##### (1) 概要

泉水를 마시거나 沐浴을 하여 人體疾病을 回復케 하는 治療法으로 泉이라 함은 自然的으로 地下에서 地面으로 湧出되어 나온 地下水를 말한다.

冷熱에 따른 區別이 있음에 氷泉은 高山峻嶺에서 많이 나오고, 冷泉은 손을 담글때 寒冷한 感을 느끼는 정도이고, 溫泉은 沐浴을 할 때에 溫暖하고 뜨겁지 아니한 정도이며, 氷泉은 마시는 것으로 溫泉은 沐浴을 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된다.

〈神農本草經〉<sup>17)</sup>에는 “水泉之甘苦 令民之所之避就”라 하여 秦漢時代 以前부터 泉水가 疾病治療에 利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宋元時代에는 泉水療法을 잘 이용한 張子和가 〈儒門事親〉<sup>18)</sup>에 雪水로 “洗目而赤退”, “泉可愈痘” 등과 같이 水泉療法이 內, 外, 兒, 眼科等 各科에 널리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明代에 이르러 各種 泉水의 氣味, 主治, 用度, 毒의 有無와 治療經驗등이 상세히 나

타나 있는 <本草綱目><sup>19)</sup>에 의해 泉水療法에 대한 것이 集大成 되었다.

(2)原理

<本草綱目><sup>19)</sup>에 무릇 水는 萬化之源이고 그 體는 純陰이나 그 用은 純陽이다. 그리고 水去即 營竭이라 하여 人間이 食事は 하지 아니하고 數日은 견딜수 있지만 물은 그러 하지 않다고 하였다.

마시는 것의 대부분은 性味가 甘平하며 모두 補養의 效果가 있다.

冷泉은 脾胃를 調和롭게 하고 滋陰津하여 清熱케 하나 끊어서 먹게 되면 溫陽하고 寒을 除去하는 作用이 있고, 溫泉은 大體로 性味가 辛熱하고 약간의 毒이 있으며 沐浴을 하게되면 癬疥와 어떠한 瘡毒이든 除去할수 있고 더불어 通經絡하며, 氣血을 활발히 하고, 瘀血을 풀고, 筋을 부드럽게 하며, 精神을 쾌활하게 한다.<sup>16)</sup>

이상과 같은 물의 氣味와 性質을 刺戟의 因子로 하여 疾病恢復에 活用하였다.

2) 巖洞

(1)概要

巖洞療法이란 自然環境中の 天然洞穴이나 掘地の 窟이나 窟과 같은 人工的인 洞穴을 이용하여 攝生과 疾病治療의 方法으로 利用하는 것을 말한다<sup>16)</sup>.

史的으로 보면 人類가 洞穴에 居住하는 것은 風寒을 避하고 猛獸로부터 몸을 保存하며 生存權을 維持하는 手段이었다. 이러한 것이 人類社會의 發展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나 이러한 特殊環境에서는 人類의 養生과 長壽 그리고 攝生으로 因한 豫防의 效果와 心身의 康復을 促進하는 意義를 가지게 되었다.

(2)原理

天然巖洞, 人工石窟, 土屋, 은 그 環境이 특히 安靜되어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精神이 平穩하게 되며 情緒的인 部分이 부드러워지며 心志가 즐겁게 되며 특히 精神損傷者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

洞中에는 恒溫을 維持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寒暑의 變化가 비교적 적어서 正氣가 虛弱한데 有利하여 病人의 健康回復에 비교적 좋다. 또한 巖洞에는 먼지나 微生物이 비교적 적어서 隔離治療가 要求되는 것에는 아주 理想的이다. <本草綱目><sup>19)</sup>에 “諸土皆能勝濕補脾”라 하여 巖洞之中的 “土”氣가 最高로 盛하다고 되어 있다. 故로 濕이 盛한 脾虛의 病症에는 自然的인 “土”氣가 補助하여 健脾除濕하는 作用이 더하게 된다.

3) 高山

(1)概要

高山이라는 것은 一般的으로 海拔 1500 - 3000m의 高地를 말하며 이 高山의 氣候나 環境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을 利用하여 疾病治療나 身體 健康을 增進하는 療法이다.<sup>16)</sup> <五常政大論><sup>7)</sup>에 “一州之氣 生化壽夭不同 其故何也? 岐伯曰 高下之理 地勢使然也……高者其氣壽 下者其氣夭.”라 하였고, <異法方宜論><sup>11)</sup>에는 “醫之治病也 一病而治各不同 皆愈何也? 岐伯曰 地勢使然也”라 하여 地勢의 高下가 人體의 體質이나 疾病 壽夭에 까지 影響을 미침을 알 수 있다. 近代에는 療養醫學과 氣象醫學이 擡頭되고 있는데 이는 高山의 環境과 氣候가 人體에 밀접한 作用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原理

산이 높은 곳의 氣는 차가워서 人體 陽氣가 안으로 收斂되고 耗散되는 것이 적어서 病이 적고 長壽케 되며, 高山의 頂上에는 大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胸襟을 쾌활하게 되어 情緒가 安靜되고 氣血이 和暢하고 生理에 有益함을 주며, 山林



이 茂盛하여 萬物이 豊足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氣機를 活暢케 하며, 高山은 陽쪽으로 向하기에 陽光이 充足하고 空氣가 新鮮하여 먼지나 汚染物이 또한 적고 이로서 사람에게 “呼吸精氣”를 提供하여 元氣를 培養케 하여 身體를 強健히 한다.

#### 4) 森林

##### (1) 概要

森林의 環境이 미치는 影響을 利用하여 人體疾病을 心身의 康復을 促進시키는 方法을 總稱해서 森林療法이라 한다<sup>16)</sup>. 森林은 화려한 色彩를 群落으로 이루기 때문에 “綠色王國”이라고 불리우며 또한 森林과 高山療法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但 森林療法과 高山療法에는 差異가 있는데 前者는 海拔 1500m以下の 森林地帶를 指稱하고 또한 森林과 平丘의 地帶를 包括한다.

〈靈樞 邪客篇〉<sup>11)</sup>에 “地有林木 人有募筋”이라 하였고 〈千金翼方〉<sup>20)</sup>에는 “森林深處 固是佳境”라 하였다. 이러한 것을 綜合해 보면 森林과 人體는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고 歷代醫家와 養生家의 認識은 森林이 良好한 影響을 미쳐 疾病을 멀리하고 延年하는데 認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最近 文明 利器의 發達로 惹起되는 密閉된 生活環境 및 環境汚染 등으로 森林浴에 대한 認識 및 重要性이 크게 擡頭되고 있는 實情이다.

##### (2) 原理

森林植物은 綠色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고 편안한 感을 주어서 疲勞를 除去하고 精神을 활발한 쪽으로 換氣시키며, 樹林은 騒音을 減少시켜 사람의 干涉을 極小化시키는 作用을 한다. 이러한 環境중에 人體에는 情緒적으로 平穩하고 安靜이 되어 自然히 心身의 康復에 有益하게 된다. 또한 綠色植物은 먼지등을 吸收하는 作用이 있어서 空氣淨化의 機能으로 人體生命 活動에 重要한 新鮮한 空氣를 供給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體質과 正氣를 增大시키는 作用을 하여 疾病의 治療를 促進시키며, 겨울에는 森林內가 森林外보다 溫度가 높고 여름에는 이와 反對로 낮다. 氣候가 圓滿하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平穩케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炎熱로 因한 陽氣와 津液耗散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康復의 效果가 뛰어나다. 以外에 森林中에는 自然의 音樂이 있는데 새소리, 소나무소리, 비 오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사람으로 하여금 寂寞함을 없애준다.

#### 5) 泥土

##### (1) 概要

天然泥土를 外用 또는 內部의 方法으로 利用하여 疾病을 治療하는 療法이다. 泥土의 種類로는 白土, 黃土, 赤土, 壁土, 汚泥, 田泥, 井泥, 桑根下土, 土蜂과, 燕와土 등을 包含하며 各種 泥土의 性味는 같지 않고 效能 및 用法 또한 均一하지 않다<sup>16)</sup>. 〈太陰陽明論〉<sup>11)</sup>에 “土生萬物” “脾屬土”의 理論에 依據하여 歷代醫家들은 泥土를 脾胃의 疾患에 많이 使用하였는데 〈傷寒論〉<sup>21)</sup>의 “赤石脂禹余糧丸和桃花湯”, 〈金櫃要略〉<sup>22)</sup>의 “黃土湯” 등 처음에는 주로 內服用으로 使用하였지만 그후 〈外臺秘要〉<sup>23)</sup>에서는 “泥餅外敷耳部 然後灸之 以治耳聾”이라 하여 外用으로도 使用하기 시작하였으며 〈本草綱目〉<sup>19)</sup>에는 泥土療法을 集大成하였는데 61種의 泥土의 氣味, 主治와 用法등을 記載하였고 그 후 歷代 醫家들에 의해 使用方法등이 더욱 發展되었다.

##### (2) 原理

〈本草綱目〉<sup>19)</sup>에 “諸土皆能勝濕補脾”의 原理에 立脚하여 口服泥漿水 能調和脾胃, 鼻聞土氣 能補益脾胃의 效能이 있고, 外用으로는 泥土의 冷性을 利用한 清熱解毒과 泥土

를 加熱하여 溫性으로 化합을 利用한 行血活血 祛風除濕의 效果를 얻어 疾病治療 및 健康增進에 活用할 수 있다.

## 6) 熱砂

### (1) 概要

따뜻한 天然모래(河川 및 砂漠地帶의 모래)를 利用하여 주로 外用의 方法으로 疾病을 治療하는 療法이다. <異法方宜論<sup>11)</sup>>에 “西方者 金石之域 砂石之處 天地之所收引也”라 하여 古代부터 熱砂療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本草綱目<sup>19)</sup>>에 “風濕頑痺不引 筋骨攣縮 冷風癱瘓 血脈斷絕. 六月取河砂 烈日暴令極熱 伏坐其中 冷即易之 取熱徹通汗 隨病用藥 切勿風冷勞役”이라 하여 熱砂療法에 대한 適應症, 應用方法 및 禁忌까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適應症 중 血脈斷絶이라 함은 西洋醫學의 脈管炎과 類似한 疾病임을 알 수 있다.

### (2) 原理

모래 粒子가 거칠어 皮膚와 接觸時 按摩作用을 얻을 수 있으며 天然모래인 경우는 그 場所가 野外에서 實施하여야 하기 때문에 太陽光線으로 인한 日光浴과 신선한 空氣로 인한 空氣浴의 效果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뜨거운 모래로 인하여 溫熱作用까지 겸한다. 이러한 作用의 影響으로 活血祛瘀, 除濕通絡, 扶助正氣의 效能을 얻어 疾病恢復에 널리 應用할 수 있다.

## 7) 日光

### (1) 概要

太陽光線을 人體에 照射하여 疾病및 心身의 健康을 促進하는 療法으로 <四氣調神大論<sup>7)</sup>>에 “無厭于日” “必待日光”이라 하여 古代부터 養生의 重要方法으로 活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本草綱目<sup>19)</sup>>에는 “太陽眞火也”라 하였고 “火는 有氣而無質 造化之間 生殺萬物 顯仁藏用 神妙無窮 火之用其之矣哉” “天非此火不能生物 人非此火自生”이라 하여 日光의 性質 및 作用에 대해 說明 하였다.

### (2) 原理

日光療法의 作用原理는 自然界의 陽氣를 利用하여 人體의 陽氣를 補함을 目的으로 하는데 특히 人體의 督脈은 陽脈之海라 하여 太陽光線을 背部로 照射하여 督脈의 陽氣를 補함으로써 十二 經絡을 통하여 全身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더우기 腦, 髓, 腎精 腎陽虧乏者는 補陽의 效果를 더욱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治療 方法이 가장 效果的이다.

## 8) 磁石

### (1) 概要

鐵磁石을 外治에 應用하는 療法이며 現代에는 磁場療法, 磁性療法, 磁穴療法이라 한다.

古來로 韓醫學에서는 各種 本草書에 磁石에 대한 記述이 言及되어 있는 바 性은 寒, 平하고 味는 辛, 鹹, 無毒하다 하였으며<sup>19)</sup>, 效能으로서는 <神農本草經<sup>17)</sup>>에서는 주로 內服用으로서 風濕으로 인한 肢節痛을 解消하고, <本草綱目<sup>19)</sup>>에서는 “明目聰耳 止金瘡血 老人虛損 腰肢痺痛 眼昏內障 陽事不起 小兒驚癇 子宮不收 大腸脫肛”을 治한다 하였으며, <千金方<sup>24)</sup>>에서는 外用으로 金瘡出血에 磁石을 붙여 止血 시켰으며 耳卒聾閉에 磁石을 耳內에 넣어 治하였다 하여 磁石을 身體 患部에 附着하여 治療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原理

磁石 및 磁氣場 療法는 人體의 各部分의 陰陽을 調整하여 調和가 缺如된 病理狀態를 正常으로 恢復시켜 氣血의 運行 障礙를 調整하여 痛으로써 '通即不痛 不痛即通'의 原理에 立脚한 痛症疾患에 대하여 鎮痛 및 消炎, 消腫의 效果를 얻을 수 있다.

## 2. 機器를 利用한 刺戟因子

物理, 化學등 基礎科學의 原理를 應用하여 組立된 機器를 통하여 發生된 人爲의인 刺戟因子를 말한다. 예로 光線, 電氣(低周波, 超音波, 極超短波, 이온 등), 磁氣場, 水治療등을 들 수 있다.<sup>25)</sup>

또한 理學의 刺戟因子중 自然的인 物質과 自然環境에 의한 刺戟因子가 時間的, 空間的인 制限性이 있는 短點을 補完할 수 있다.

### 1) 光線<sup>1, 2, 25-28)</sup>

自然的 혹은 人工的인 光線을 利用하여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方法으로 光線治療에 利用되는 物理的 因子로는 太陽光線을 爲始하여 赤外線, 綜合可視光線, 紫外線, 레이저光線 등이 있으며 이들의 輻射에너지를 利用하여 經絡을 刺戟하면 전체적인 經絡調整이 되어 疾病治療가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 (1) 綜合可視光線

모든 生命體는 太陽光線 아래에서 空氣를 呼吸하고 營養을 攝取하여 生存하며 生殖과 生活에 必要한 에너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生命의 根源에 대한 主體는 波長 3,800-8,100Å의 可視光線과 8,100Å 附近의 近赤外線으로 이루어진 綜合可視光線이다. 綜合可視光線을 理學的 刺戟因子로 利用함으로써 光線에서 나오는 光線에너지가 人體에 投入되어 體力를 補強하며 新陳代謝를 圓滑하게 해 주어 自然治療力을 보다 效果的으로 높여주는 療法으로 주로 鎮痛, 消痒, 肉雅發生作用등의 效果를 얻을 수 있다.

#### (2) 赤外線

赤外線이란 分光器의 分析에서 赤光의 外側에 있는 赤線으로 波長은 7,700-150,000Å이며 熱作用이 있으므로 熱線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赤外線 波長이 다른 光線보다 物體에 吸收되기 쉽기 때문이다. 赤外線의 照射로 經穴에 溫熱因子가 作用하여 氣血營衛의 循環이 促進되며 全身的인 經絡調整이 可能하게 되어 疾病의 狀態를 恢復시킬 수 있으며 특히 溫熱作用으로 인한 痛症緩和, 筋弛緩, 老廢物 除去, 血液循環 增進의 效果를 얻을 수 있다.

#### (3) 紫外線

紫外線은 分光器의 分析에서 紫色光 外側에 있는 光線으로 波長은 1,800-3,900Å이며 化學作用이 있어 化學線이라고도 한다. 太陽에서의 紫外線 放出量 중 大部分이 大氣圈에서 吸收되어 地球表面에 輻射되는 紫外線은 地域과 季節에 따른 差異도 있으나 大概 1-5% 정도이다. 紫外線의 含量은 적은 편이나 그 化學的 作用은 人體에 影響을 주는 면이 크다. 즉 紫外線 照射로 光學的 變化를 일으켜 人體에 直接 또는 間接 反應을 나타낸다. 直接反應으로는 光熱에너지가 吸收되어 化學적으로 變化하거나 光感覺性이 增加한다. 間接反應은 光熱에너지가 光受容器에 傳達되어 神經內分泌로 視床下部, 脊髓, 腦下垂體 및 松顆體 등에 位置하고 있는 神經傳達體로 神經信號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機轉도 經絡을 통해 光熱에너지가 內部臟器까지 影響을 미칠 수가 있다. 紫外線의 效果로는 皮膚에 存在하는 光化學的 效果와 代謝成長 및 循環 등에 나타나는 生物學的 效果로 大別 할 수 있다.

### 2) 電氣<sup>1, 2, 25, 27-30)</sup>

琥珀이나 유리봉을 명주나 모피같은 物質에 비비면 작은 종이나 코르크조각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現象이 바로 電氣의 發生을 보여 주는 것인데 自然이 가지는 基本的인 힘들 중의 하나이다. 또한 두 物體 사이의 重力은 그들의 質量에 따라나 두 物體 사이의 電氣力은 그들의 電荷에 따른다. 電荷는 一般物質을 構成하는 素粒子(電子, 陽性子, 中性子)의 基本 性質이다. 한편으로는 電氣는 電子들을 原子에 原子들을 分子에 묶는 힘이라 할 수 있으며 窮極的으로는 모든 物質의 化學的 性質을 決定한다. 細胞속의 電氣力은 重要하며 細胞壁을 건너 이온들을 運搬함에 影響을 미치며, 神經衝擊을 傳達하고 筋肉纖維質을 움직이게 한다. 특히 電氣療法으로 電氣에너지를 熱에너지로 轉換시켜 溫熱效果를 얻을 수 있으며 電氣回路의 모든 部分에서 磁力이 發生되어 電磁場을 形成하여 人體의 全身經絡에 影響을 미칠 수 있고 人體의 組織이나 體液은 電解質로 되어 있기 때문에 電流로 인해 分子가 이온화되는 化學的 效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溫熱 效果와 化學的 效果의 複合作用으로 生理的 效果를 얻을 수 있는데 熱效果로 나타나는 體溫의 變化로 新陳代謝量의 增加, 食菌作用의 增加, 末梢血管의 壓力增加, 細胞膜의 透過性 增大, 血液內의 pH 및 血液量 增大의 效果를 가져다 준다.

3) 水<sup>1, 25, 31, 32)</sup>

水治療는 물의 液體性, 氣體性, 固體性의 모든 形態를 利用하여 人體에 內, 外의으로 刺戟을 줌으로써 疾病을 治療하는 方法으로 모든 物理治療 중에서 가장 歷史가 오래된 治療法 중의 하나이다. 즉 人類의 시작과 함께 水治療는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水治療는 濕熱인 溫熱刺戟治療와 얼음 및 冷水를 利用한 冷治療로 大別되며 溫熱治療는 다시 물과 蒸氣를 利用한 治療法으로 分類 할 수 있다. 물을 利用할 때는 溫度의 差에 따라 熱水, 中溫, 微溫, 冷 등으로 分類한다. 한편 물에 의한 刺戟의 效果는 皮膚의 溫度와 물 溫度差, 適用速度, 適用되는 皮膚의 面積 등에 의해 決定되며 물과 皮膚의 溫度差가 클수록, 適用하는 速度가 빠를수록, 適用되는 面積이 크면 클수록 刺戟의 效果는 一般的으로 커진다.

水治療의 生理的 效果는 다음 아래와 같다(도표 2).

도표 2. 水治療의 生理的 效果

效 果	方 法	效 果	方 法
刺戟 效果	냉수, 열수욕	鎮靜 效果	미온수, 중온수욕
強壯 效果	냉수욕	利尿 效果	냉수, 한냉수를 마심
發汗 效果	온수, 열수, 증기욕	吐劑 效果	미온수를 마심
下劑 效果	미온수	鎮痛 效果	고온욕, 한냉욕
滅菌 效果	열수, 증기욕	防腐 效果	중류수
解熱 效果	중온수욕	催眠 效果	지속욕
發熱 效果	고온수욕, 열수욕	代謝作用增進	온수, 열수욕
局部마사지	한냉, 얼음		

4) 磁氣場<sup>27, 28, 30)</sup>

磁氣도 自然이 가지는 基本的인 힘의 하나이며 電氣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磁氣物質이 自然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磁氣現象 몇 가지가 古代로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야 電氣와 磁氣가 서로 關聯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磁氣現象들이 發見 되었을 뿐이다. 사실 發電機, 變轉機 및 電動機와 같은 電氣를 商

業目的으로發電하고分配함에 쓰이는 모든 機具들이 1820年과 1831年 사이에 發見된 여러 電磁氣의 原理에 基礎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73年 Maxwell은 이들 原理가 光速도로써 달리는 電氣場과 磁氣場의 스스로 나아가는 波動들이 있음을 暗示한다는 것을 數學的으로 證明하였다.

最近 이와 같은 磁氣場을 人爲的으로 形成시켜 人體에 適用해 본 結果 酸素의 改善된 供給 및 酸素의 移動, 血管과 毛細血管에 대한 보다 나은 血液供給, 免疫性 增加, 疼痛緩和, 抗痙攣, 消炎의 效果가 있음이 證明되었고 韓醫學에서도 磁氣場을 利用하여 經絡에 刺戟하여 陰陽의 不均衡 및 經絡흐름의 停滯, 偏重 등으로 인한 身體의 證狀을 臨床的으로 活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 第 6 節. 比較 研究

五行說은 어디까지나 客觀的 經驗에서 出發하여 森羅萬象을 五行 즉 다섯개의 根本象으로 還元하고 相生相剋이란 原理에 의하여 宇宙(自然과 人事)를 象徵的으로 解釋하고자 하는 異說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辨證法的인 陰陽學說이 그러하듯이 自然界의 모든 事物에 대한 可知性과 온갖 事物의 相互關係를 說明하는데 이 學說이 쓰였다. 古代에는 自然界의 事物에 대한 觀察이 簡單하고 直觀的인 類推에 의한 認識이었다고는 하지만 五行學說은 素朴한 唯物論的 世界觀을 具顯하였다.

東洋醫學에서는 일찍부터 綜合體(整體)를 主로 한 固有의 理論體系가 있었는데 그 發展過程에서 認識上의 說明이나 解釋의 理論的 道具로써 또한 經驗을 歸納시키는 手段으로써 五行說이 導入되었다.

以上을 綜合하면 五行學說의 對象은 自然界의 모든 事物이라고 할 수 있으며 物理療法이란 바로 自然界의 모든 事物들이 發顯하는 現象을 應用, 精製하여 疾病治療 및 健康增進에 도움을 주는 治療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物理療法'하면 단지 現代科學의 裝備등을 應用한 것으로만 생각하며, 物理療法의 治療原理와 現代科學 尖端裝備들의 理學的 原理가 바로 東洋醫學의 基礎理論인 陰陽五行과는 別個의 것으로만 認識하고 있는 實情이며 이들에 대한 關係 및 比較에 관한 書籍이나 論文들은 찾아보기 힘든 狀態이다. 또한 앞으로 現代科學의 發達로 各種 文明利器들이 계속 出現되고 있는 現實을 勘案할 때 이들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解釋과 見解를 갖지 못하면 韓醫學의 領域은 漸漸 좁아지게 될 것으로 思料되어 얇은 知識으로나마 本 論文을 試圖 하였다.

이에 物理療法에서 應用되고 있는 理學的 刺戟과 모든 事物의 屬性을 分流 說明할 수 있는 五行과의 關係를 比較 研究 하였는데 理學的 刺戟因子를 本質(屬性)과 變化(作用)에 따른 分類로 나누어 五行에 配屬하였다.

우선 理學的 刺戟因子의 本質(屬) 面에서 살펴보면 山林은 주로 나무의 屬性이 있으므로 木에, 光線, 日光은 빛과 熱의 屬性이므로 火에, 巖洞, 泥土, 熱砂, 高山은 흙의 成分과 性質을 갖고 있으므로 土에, 電氣, 磁氣場(磁石)은 鐵의 屬性에 依存하기에 金에, 泉水(水治療)는 물의 性質을 活用하기에 水에 配屬할 수 있었다(도표 3).

도표 3. 理學的 刺戟因子의 本質에 따른 五行과의 配屬

木	山林	나무
火	光線, 日光	빛, 열

土	巖洞. 泥土. 熱砂. 高山	흙
金	電氣. 磁氣場(磁石)	철
水	泉水. 水治	물

또한 理學的 刺戟因子를 活用하여 人體에 適用하였을때 나타나는 變化(作用)面에서 살펴보면 山林은 草木의 氣運(伸長, 曲直, 湧出등)을 人體에 直接 應用하므로 木에 配屬할 수 있는 것으로 思料되며, 泉水療法에서 冷泉은 주로 飲料水로 使用하여 脾胃를 調和롭게 하기 때문에 土에, 溫泉은 溫熱作用으로 溫經絡 作用에 目的이 있으므로 火에, 巖洞療法은 地氣인 土氣를 利用하여 脾를 補함에 活用되므로 土에, 高山療法의 주된 目的은 신선한 空氣로 呼吸精氣를 얻고자 하니 金에, 高山에는 山林 또한 茂盛하므로 木에도 配屬시킬 수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水治療, 泥土는 溫冷의 性質에 따라 作用이 다르므로 溫性은 火에, 寒性은 趙<sup>15)</sup>에 의하여 水에 配屬시킬 수 있으며 泥土에는 內服으로 脾胃를 補하는 效果가 있어 土의 性質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한편 熱砂療法은 溫熱作用이 있으므로 火에, 日光療法은 빛과 熱의 因子로 補陽의 效果를 얻을 수 있으므로 火에, 磁石療法은 鐵磁石 및 磁氣場을 應用하여 陰陽의 不均衡을 바로 잡아주는 作用이 있기 때문에 韓<sup>3)</sup>이 說明한 土의 性質과 類似한 것으로 思料되었다. 光線과 電氣療法은 溫熱作用으로 鎮痛의 效果를 目的으로 하기에 火에 配屬시킬 수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도표 4).

도표 4. 理學的 刺戟因子의 變化에 따른 五行과의 配屬

木	山林. 高山
火	光線. 日光. 泥土. 熱砂. 電氣. 水治(溫)
土	冷泉. 巖洞. 泥土. 磁氣場(磁石)
金	高山
水	泥土. 水治(冷)

以上과 같이 理學的 刺戟因子를 五行과 比較研究하면서 本質的인 面에서는 상당한 類似性이 있었으나 變化面에서는 위와 같은 配屬 以外에도 觀察者의 觀點 基準에 따라 다르게 配屬시킬 수 있기 때문에 考察하는데 어려웠으며 앞으로 좀더 많은 思考觀과 臨床觀察 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 Ⅲ. 結 論

以上으로 理學的 刺戟因子와 五行과의 比較 研究를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五行學說은 自然界 事物에 대하여 形而上學的인 側面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物質 그 自體 뿐만 아니라 그 物質이 內包하고 있는 屬性, 性質등에 依據하여 森羅萬象의 모든 것들을 그 特徵에 따라 各各 五行의 어느 하나로 分

類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理學的 刺戟因子란 自然界의 모든 事物들이 發現하는 現象을 精製하여 應用한 刺戟因子를 말하며 自然을 利用한 것과 器機를 利用한 것으로 分類할 수 있었다.
3. 理學的 刺戟因자의 本質에 따른 五行과의 配屬은 다음과 같았고(도표 3), 五行 중 土에 대한 配屬이 많았다.
4. 理學的 刺戟因자의 變化에 따른 五行과의 配屬은 다음과 같았고(도표 4), 五行 중 火에 대한 配屬이 많은 것은 理學的 刺戟因子들의 主된 目的이 溫經絡療法으로 인한 鎮痛의 效果에 있는 것으로 思料되었다.
5. 器機를 利用한 理學的 刺戟因子들은 磁氣場을 除外하고는 溫熱作用이 主가 되어 火에 配屬되었다.
6. 水와 火에 配屬된 理學的 刺戟因子들은 주로 疼痛에 많이 應用되었고, 木, 金, 土에 配屬된 理學的 刺戟因子들은 주로 精神疾患(七情)에 많이 應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以上の 結論으로 五行學說을 가지고 理學的 刺戟因子에 대해 새로운 解釋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自然 및 事物에 대하여 좀더 많은 思考觀과 臨床觀察이 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林準圭. 申鉉大 外 : 東醫物理療法科學, 서울, 高文社, p. 3, pp. 91-159, 1990.
2. 林準圭 : 自然療法大典, 서울, 高文社, pp. 69-77, 215-236, 1986.
3. 韓東錫 : 宇宙變化的 原理, 서울, 杏林出版, pp. 47-109, 1985.
4.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p. 64-70, 1984.
5. 姜孝信 : 東洋醫學概論, 서울, 高文社, pp. 11-29, 1981. 1.
6. 崔容泰 : 精解鍼灸學, 서울, 行林書院, pp. 4-9, 1982.
7. 王琦 外 : 黃帝內經素問今釋, 中國, 貴州出版社, pp. 7-48, 68-70, 85-92, 133-135, 150-153, 294-435, 1979.
8.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中國, 內蒙古出版社, pp. 6-22, 1986.
9. 蔡仁植 : 漢方臨床學, 서울, 大星文化社, pp. 14-20, 1987.
10. 方藥中 : 黃帝內經 素問運氣七篇 精解,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pp. 41-420, 1982.
11. 洪元植 : 黃帝內經解釋, 서울, 高文社, pp. 183-185, 286-292(靈樞), pp. 18-52, 71-73, 88-89, 140-143, 161-164(素問), 1982.
12. 都珖淳篇 : 道教와 科學, 서울, 比峰出版社, pp. 22-30, 63-80, 86-90, 1990.
13. 李正來 : 東醫要諦眞銓, 서울, 泰昌出版社, pp. 69-71, 1992.
14. 方藥中 : 五行學說의 東醫學에서의 照明, 서울, 東洋醫學 第9卷 第1號, pp. 26-33, 1983.
15. 趙明彥 : 象理哲學, 서울, 明文堂, pp. 47-64, 1990.

16. 郭子光 : 中醫復康學, 中國,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103-147, 1986.
17. 孫星衍等輯錄 : 神農本草經, 香港, 五洲出版社, p. 50, pp.132-133, 1976.
18. 張子和 : 儒門事親, 臺北, 旋風出版社, pp. 36-42, 1978.0000
19. 李時珍 : 本草綱目,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pp. 369-412, 415-419, 425-452, 583-585, 1982.
20. 孫思邈 : 千金翼方, 臺北, p.153, 1972.
21. 張仲景 : 傷寒論, 臺北, 旋風出版社, p. 62, 1973.
22. 張仲景 : 金匱要略, 臺北, 旋風出版社, p. 51, 1972.
23. 王燾 : 外臺秘要,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 86, 1972.
24. 孫思邈 : 千金要方, 香港, 人民衛生出版社, p. 460, 1976.
25. 김용천 외 : 物理治療學概論, 서울, 大學書林, p. 13, pp. 21-30, 127-180, 1989.
26. 박찬의 : 光線治療, 서울, 大學書林, pp.11-25, 1989.
27. 김호인 외 : 物理學, 서울, 集賢社, pp. 302-303, 362-430, 1983.
28. PSSC 翻譯委員會譯 : PSSC 物理, 서울, 探求堂, pp. 200-213, 495-580, 1968.
29. 이재학 : 電氣治療學, 서울, 大學書林, pp.13-55, 1983.
30. 권영대 : 一般物理學, 서울, 光林社, pp.232-265, 1984.
31. 민경옥 : 溫熱과 水治療, 서울, 大學書林, pp. 97-137, 1985.
32. 李太敎 : 재미있는 물이야기, 大田, 문성인쇄, p. 65-103, 1991.